

TDB景気動向調査(全国) — 2015년 7월 조사 —

2015년8월5일

주식회사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http://www.tdb.co.jp/>

경기동향 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경기호전으로의 재료늘어

~ 경기모멘텀의 실감없는 상승으로 ~

(조사대상 2만3,176사, 유효회답 1만1,008사, 회답률 47.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와 포인트

1. 7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45.4가 되어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원유가격의 하락이나 공공공사의 약보합 등 경제를 정체시키고 있던 요인이 희미해졌다. 국내경기는 임금상승이나 내수소비의 확대 등 생산·소비 활동으로의 호재료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회복력에 탄력을 느낄 수는 없으나 완만한 오름세 경향이 기대된다.
2. 업계별로는 『건설』 『제조』 『도매』 『서비스』 등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설비투자나 주택투자가 건조하게 추이하여 건설·기계관련의 개선이 눈에 띄었다. 7월의 경기는 『제조』와 『도매』가 크게 영향을 끼친 이외에, 『서비스』도 전체를 0.10포인트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3. 지역별로는 『토호쿠』나 『미나미칸토』 『토카이』 등 4개월만에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공공공사가 상향된 것에 더해서 프리미엄 상품권에 의한 지방상점 등으로의 소비효과가 보여졌다. 규모별로는 4개월만에 전 규모가 개선되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건설이나 운수 등 전 10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 2015년 7월의 동향 : 호재료 늘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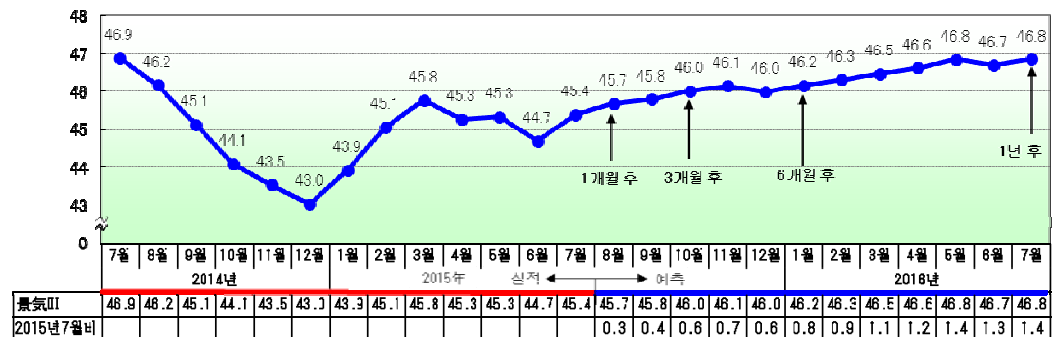
2015년 7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늘어난 45.4가 되어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7월은 원유가격이 1배럴=40달러대 (WTI) 로 하락하여 가솔린이나 경유가격이 저하하여 중소운수업의 체감경기를 상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급여수준의 상승에 더하여 대기업의 하절기 상여 타결액이 과거 3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는 등 소득환경이 개선된데다, 계속되는 엔저수준에 힘입어 중국 등으로부터의 일본방문 여행객에 의한 내수소비가 확대되어 개인소비관련이 호조를 띄었다. 건조한 설비투자나 약보합 경향으로 보였던 공공공사도 있어, 건설관련 수요가 높아진 이외에, 일반승용차의 생산이 상승하여 기계제조 등이 건조하게 추이하였다. 국내경기는 임금상승이나 내수소비의 확대 등 생산·소비활동으로의 호재료가 늘어나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상승경향 >

유효구인배율의 개선이나 실업률의 저하 등 노동수요는 상승세를 보이는 상태이며 고용자 소득은 상승 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건설이나 정보서비스, 여관·호텔 등에서 일손부족이 많아지게되어 고용상황의 개선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주택착공호수의 회복이나 대형 인프라투자도 높은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외에, 자동차 생산의 회복을 통한 기계수요의 회복이나 미국경제의 건조한 성장은 플러스 재료라 할 수 있겠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회복력에 탄력을 느낄 수는 없으나 완만한 오름세 경향이 기대된다.

다만 식품가격의 상승 등 개인소비가 억제되는 리스크 이외에, 중국의 성장둔화로 수출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들이 현실화 될 경우 생산조정의 장기화나 기업의 투자억제 저하 등 경기가 하향 될 우려는 남아있다.



* 경기예측치는 AFIMA모델에 경제동향을 다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10개 업계 중 9개 업계에서 개선, 『서비스』가 전체를 0.10포인트 상승시켜

· 『건설』 『제조』 『도매』 『서비스』 등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건설·기계관련의 개선이 눈에 띄었다. 7월의 경기는 『제조』와 『도매』가 크게 영향을 끼친 이외에 『서비스』가 전체를 0.10포인트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 『건설』 (48.6) …전기 대비 0.9포인트 증가.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엔저에 의한 공장 등의 국내회귀에 동반한 설비투자 수요에 더하여 개인의 주택수요가 오르기 시작하여 판공공사나 내장공사, 방수공사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리모델링수요가 견조하게 추이하는 가운데 일손부족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공공공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발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등 건수·금액 모두 서서히 마이너스 폭이 감소되었다.

· 『제조』 (44.6) …동 0.6포인트 증가.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건설수요가 오르기 시작하여 관련된 「건설·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41.2, 동 0.9포인트 증가)가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일본방문 관광객의 증가에 의한 관광버스의 생산이 호조였던 이외에,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계속된 일반 승용차의 생산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수송용 기계·기구제조」 (50.9, 동 1.2포인트 증가)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 「철강·비철·광업」 (43.6, 동 0.7포인트 증가)도 5개월만에 개선되었다. 또한 어획량·금액이 호조였던 수산통조림제조를 포함한 「음식료품·사료제조」 (43.4, 동 0.3포인트 증가) 등 『제조』는 12개 업계 중 10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도매』 (42.5) …동 0.8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건설이나 자동차, 기계제조가 호조로 관련된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40.4, 동 1.1포인트 증가)가 6개월만에 개선된 이외에, 「기계·기구도매」 (45.6, 동 0.5포인트 증가)도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또한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7.1, 동 2.6포인트 증가)는 문방구·사무용품 도매나 종이제품 도매가 견조하게 추이하였다. 내수소비나 여름휴가 전에 투입한 과자류의 신상품 판매가 호조였던 「음식료품도매」 (44.1, 동 1.1포인트 증가) 등 『도매』는 9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서비스』 (50.4) …동 0.7포인트 증가.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여관·호텔」 (59.2, 동 5.0포인트 증가)는 임금상승에 동반하는 국내 여행자수의 증가나 내수소비의 효과도 있어서 4개월 연속으로 개선, 과거 최고를 갱신하였다. 또한 건설관련의 호조로 증가하고있는 산업폐기물 처분이나 많은 수의 대기아동을 안고 있는 보육원 등을 포함하는 「의료·복지·보건위생」 (45.3, 동 2.0포인트 증가)이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오염세가 시작된 공공공사나 설비투자로 건설기계 리스수요가 뒷받침된 「리스·임대」 (48.7, 동 0.8포인트 증가)는 3개월만의 개선이 되었다. 마이넘버제도에 대응하는 개발이나 기업으로부터의 IT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정보서비스」 (56.4, 동 1.0포인트 증가) 등, 『서비스』는 15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농·임·수산	45.1	40.9	42.1	41.8	38.6	39.5	41.3	40.0	44.0	43.7	45.0	41.9	45.0	3.1	
금융	49.2	47.9	47.1	44.9	45.3	45.2	45.1	44.7	48.0	48.1	47.4	49.2	47.4	▲ 1.8	
건설	53.5	53.2	52.8	51.6	51.0	50.3	50.4	50.4	50.8	49.3	48.6	47.7	48.6	0.9	
부동산	47.4	46.8	47.0	45.2	43.6	44.1	45.1	47.2	48.8	48.8	49.6	49.1	49.6	0.5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9.9	39.8	39.5	39.0	36.8	37.5	37.2	39.8	43.1	42.1	44.3	43.1	44.3	1.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41.8	42.0	39.8	39.4	36.8	38.1	36.8	39.7	37.6	40.2	41.7	39.4	41.7	2.3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5.0	44.6	43.3	44.0	44.1	43.3	43.2	41.9	42.1	40.3	40.9	40.3	40.9	0.6
	플라스틱·종이·종이가공제품제조	39.4	36.2	36.1	36.7	36.1	36.3	34.8	37.3	39.3	39.8	40.0	39.0	40.0	1.0
	출판·인쇄	34.9	33.7	33.1	31.5	31.5	31.0	31.8	33.5	34.1	34.6	34.1	33.5	34.1	0.6
	화학제품제조	46.6	45.8	43.4	42.4	42.9	43.3	43.2	44.5	44.6	44.1	44.4	43.9	44.4	0.5
	철강·비철금속·광업	48.7	49.1	46.8	45.3	44.4	42.8	44.8	46.8	45.2	43.9	43.0	42.9	43.0	0.1
	기계제조	53.8	52.2	51.7	50.5	50.0	48.6	49.6	51.5	52.6	52.5	51.6	51.3	51.6	0.3
	전기기계제조	49.9	47.3	46.2	46.1	45.9	45.8	47.3	48.4	49.7	47.7	47.3	47.4	47.3	▲ 0.1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2.8	53.4	50.7	48.2	48.0	47.7	47.4	50.3	50.4	51.1	47.8	49.7	47.8	▲ 1.9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8.2	49.3	48.1	46.6	45.4	45.0	47.9	48.9	49.2	47.8	49.8	49.4	49.8	0.4
	기타 제조	39.2	39.3	38.3	37.9	38.4	35.2	35.4	38.7	38.7	37.1	40.7	37.8	40.7	2.9
전체	46.3	45.6	44.2	43.4	42.9	42.3	43.0	44.6	45.1	44.4	44.5	44.0	44.5	0.5	
도매	식품료품도매	41.0	39.6	39.9	39.0	37.1	37.6	38.3	39.7	40.6	42.6	42.9	43.0	42.9	▲ 0.1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6.7	35.9	35.3	34.3	30.7	30.2	31.1	32.2	33.3	35.5	37.0	34.8	37.0	2.2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44.3	42.9	41.5	41.0	39.5	39.3	39.0	40.5	40.2	38.2	38.7	38.1	38.7	0.6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5.9	34.6	33.8	32.9	33.5	31.8	33.2	35.1	37.7	37.3	38.1	34.5	38.1	3.6
	화학제품도매	43.4	42.8	40.8	40.6	40.0	37.8	38.9	41.2	41.8	42.5	43.0	43.1	43.0	▲ 0.1
	재생활도매	47.3	47.3	46.1	37.8	40.4	40.8	39.0	38.5	39.3	39.7	42.3	40.1	42.3	2.2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6.0	44.9	43.5	43.2	43.8	42.1	43.9	43.5	43.2	41.2	40.3	39.3	40.3	1.0
	기계·기구도매	47.6	46.7	44.9	43.9	43.6	43.2	44.8	46.0	47.3	46.7	46.3	45.1	46.3	1.2
	기타 도매	40.4	40.2	38.5	36.7	37.1	35.1	37.5	38.5	40.7	40.9	41.8	42.0	41.8	▲ 0.2
	전체	43.8	42.9	41.5	40.6	40.0	39.1	40.4	41.5	42.5	42.3	42.5	41.7	42.5	0.8
소매	식품료품소매	39.1	40.7	39.3	36.8	34.7	34.5	36.8	38.2	39.4	39.3	41.6	42.7	41.6	▲ 1.1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6.3	36.2	38.2	36.7	32.0	30.8	30.7	32.3	34.8	38.0	40.2	37.0	40.2	3.2
	의약품·의료장비소매	40.8	40.7	41.7	41.1	42.6	38.9	44.6	45.3	46.0	48.1	48.0	48.6	48.0	▲ 0.6
	가구류소매	28.8	30.6	37.0	22.7	27.3	26.4	28.8	33.3	27.8	35.0	40.0	43.3	40.0	▲ 3.3
	가전·정보기구소매	39.7	37.4	36.1	36.2	36.0	34.3	39.3	39.0	43.2	38.4	41.5	40.6	41.5	0.9
	자동차·동 부품소매	32.1	34.4	33.0	30.1	31.8	28.7	37.8	40.7	38.8	36.5	39.9	37.2	39.9	2.7
	전문상품소매	36.2	36.8	36.2	36.3	36.0	39.2	41.4	43.7	42.3	39.4	40.5	38.0	40.5	2.5
	각종상품소매	42.1	41.7	41.8	41.2	39.1	40.5	42.6	41.0	40.6	47.1	49.7	48.1	49.7	1.6
	기타 소매	36.7	43.3	37.5	40.0	40.0	41.7	33.3	36.7	38.9	41.7	36.1	43.3	36.1	▲ 7.2
	전체	37.3	37.8	37.5	36.3	35.5	35.9	39.1	40.5	40.5	40.2	42.1	40.7	42.1	1.4
운수·창고	44.9	45.8	43.7	43.7	44.8	43.8	43.7	44.8	44.9	44.8	44.8	42.6	44.8	2.2	
서비스	음식점	49.1	48.7	46.7	42.6	45.1	39.9	44.6	45.2	49.2	50.0	49.6	48.3	49.6	1.3
	전기통신	53.3	50.0	50.0	46.3	48.1	50.0	56.3	53.7	48.3	54.2	53.7	50.0	53.7	3.7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1.7	48.3	50.0	46.3	43.8	44.4	50.0	50.0	48.3	55.0	53.7	53.0	53.7	0.7
	리스·임대	53.8	51.7	51.8	49.7	49.9	49.1	50.9	50.0	49.3	49.6	47.9	47.9	47.9	0.0
	호텔·호텔	47.7	44.4	46.2	46.3	47.0	47.6	47.7	49.5	48.6	51.4	53.1	54.2	53.1	▲ 1.1
	오락서비스	38.3	39.5	39.4	39.5	36.4	36.5	34.4	36.7	40.6	38.7	40.2	37.9	40.2	2.3
	방송	44.4	45.2	44.0	45.2	43.3	41.7	44.4	40.0	45.6	47.9	45.6	46.1	45.6	▲ 0.5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49.4	46.8	45.7	45.8	43.1	42.6	44.6	46.9	47.2	47.8	48.1	47.4	48.1	0.7
	광고관련	42.5	41.4	41.1	38.6	38.7	38.8	38.8	39.3	42.1	42.2	41.1	41.0	41.1	0.1
	정보서비스	54.5	53.5	52.8	51.4	51.6	52.2	53.5	54.6	56.3	56.3	55.3	55.4	55.3	▲ 0.1
	인재파견·소개	57.2	56.2	56.9	55.6	53.9	54.0	55.7	57.5	56.7	55.5	56.2	56.3	56.2	▲ 0.1
	전문서비스	55.2	53.7	53.9	50.7	50.7	50.3	50.8	51.4	53.0	51.0	51.7	50.9	51.7	0.8
의료·복지·보건위생	47.6	47.1	46.2	46.2	45.0	44.1	44.7	45.7	45.3	46.1	46.3	43.3	46.3	3.0	
교육서비스	45.1	40.7	41.7	42.4	41.7	39.9	40.5	40.2	39.5	41.2	41.1	44.4	41.1	▲ 3.3	
기타 서비스	48.7	48.4	47.2	44.9	45.2	45.0	47.4	48.1	47.2	46.1	46.8	49.5	46.8	▲ 2.7	
전체	50.9	49.7	49.2	47.7	47.3	47.2	48.3	49.2	50.3	50.1	49.9	49.7	49.9	0.2	
기타	44.9	43.1	42.8	40.6	37.7	41.5	37.3	41.7	42.0	43.2	40.2	41.9	40.2	▲ 1.7	
격차 (10개 업계별 [기타] 제외)	16.2	15.4	15.3	15.3	15.5	14.4	11.3	10.4	10.3	9.9	7.8	9.0	7.8		
중국전출	49.2	48.8	46.2	45.5	45.3	44.7	45.6	47.4	47.8	48.2	47.9	47.0	47.9	0.9	
태양광발전	50.6	51.7	50.2	47.7	46.5	46.0	45.7	47.0	48.0	46.0	47.2	44.5	47.2	2.7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을 포함함.

규모별 : 「중소기업」은 건설이나 운반 등 전 10개 업계가 개선

· 「대기업」이 48.8 (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 「중소기업」이 44.5 (동 0.9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이 43.4 (동 0.3포인트 증가)가 되어 4개월만에 전 규모가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수산물, 어획량이나 도매가격이 상향된 『농·임·수산』, 엔저에 의한 국내생산회귀에 동반하여 견조한 설비투자의 영향을 받은 『제조』 등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건설』이 공공공사의 상향이나 주택착공수의 증가 등으로 6개월만에 개선, 『운수·창고』는 가솔린이나 경유 등 연료비의 안정으로 4개월만에 개선되는 등 전 10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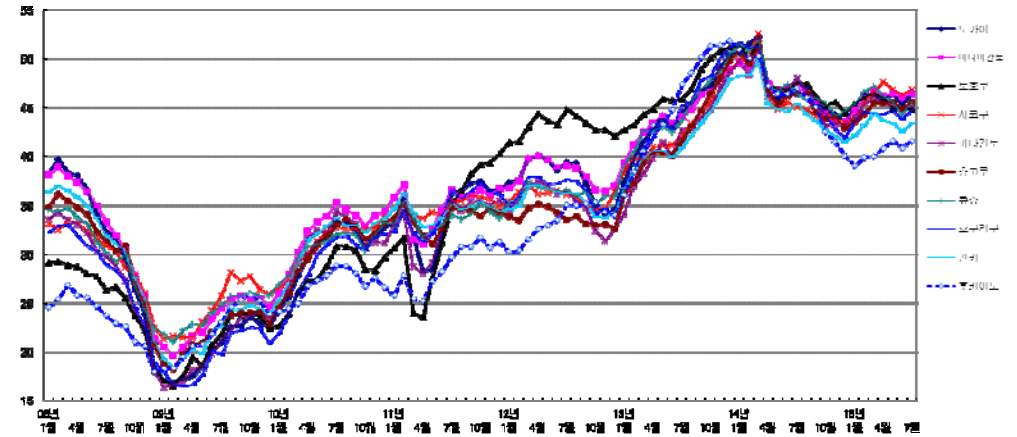
	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대기업	49.7	49.2	48.1	47.5	46.9	46.6	47.1	48.0	48.6	48.9	49.2	48.4	48.8	0.4
중소기업	46.1	45.3	44.3	43.1	42.6	42.0	43.0	44.2	45.0	44.3	44.3	43.6	44.5	0.9
(그 중 소규모기업)	45.3	44.7	44.0	42.5	42.1	41.6	42.3	43.4	44.3	43.1	43.2	43.1	43.4	0.3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6	3.9	3.8	4.4	4.3	4.6	4.1	3.8	3.6	4.6	4.9	4.8	4.3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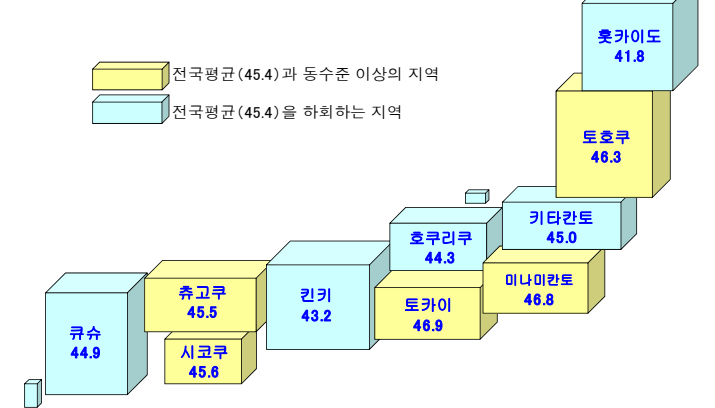
지역별 : 4개월만에 9개 지역이 개선

- 『토호쿠』나 『미나미칸토』, 『도카이』 등 4개월만에 10개 업계 중 9개 지역이 개선, 『시코쿠』가 악화되었다. 공공공사의 요율세에 더하여 지방상점 등으로 프리미엄 상품권에 의한 소비효과가 보여졌다.
- 『토호쿠』 (46.3) ...전월 대비 1.3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지진재건수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공사의 발주가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용 전자부품이 호조였던 이외에, 프리미엄 상품권에 의한 개인소비의 환기효과로 식품관련이 상향된 『제조』 (동 2.5포인트 증가) 나 『소매』 (동 2.1포인트 증가)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 『미나미칸토』 (46.8) ...동 0.7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공공공사의 개선에 의한 기계·기계 리스수요나 신규안전이 증가하고 있는 빌딩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서비스』 (동 1.1포인트 증가)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이외에, 『건설』 (동 1.2포인트 증가)은 4개월만에 개선되는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 『동해』 (46.9) ...동 1.6포인트 증가. 2개월만에 개선 되어 17개월만에 전국 1위가 되었다. 민간 설비투자나 공공공사의 발주가 상향된 『건설』 (동 3.7포인트 증가)이 10개월만에 50대를 회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동 2.0포인트 증가)은 역대 주요 자동차메이커의 생산이 회복되고 기계제조나 전기기계기구도매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상향되어 10개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별 그래프 (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홋카이도	47.0	46.0	45.0	42.5	41.5	40.1	39.1	39.9	40.0	40.8	41.6	40.9	41.6	0.7
토호쿠	47.6	47.5	46.1	45.2	45.6	44.5	45.4	46.0	46.5	46.0	44.9	45.0	44.9	▲ 0.1
키타칸토	48.1	46.8	45.8	43.1	43.4	43.2	44.1	45.3	46.2	45.4	45.2	44.8	45.2	0.4
미나미칸토	47.4	46.5	45.4	44.4	43.8	43.6	44.7	46.0	46.8	46.2	46.5	46.1	46.5	0.4
호쿠리쿠	46.5	46.3	45.2	44.3	42.8	41.9	43.6	44.6	44.4	44.4	44.8	43.8	44.8	1.0
도카이	47.5	47.0	45.6	44.7	44.4	43.4	45.0	46.3	46.4	45.6	46.5	45.3	46.5	1.2
킨키	45.4	44.4	43.7	42.7	42.1	41.5	42.2	43.2	44.5	43.7	43.4	42.6	43.4	0.8
츄고쿠	46.5	46.4	44.5	43.9	44.0	42.9	43.6	44.4	45.5	45.4	45.6	44.8	45.6	0.8
시코쿠	45.1	44.9	44.2	44.5	43.5	43.6	43.8	45.5	46.6	47.7	46.9	46.3	46.9	0.6
큐슈	46.4	45.9	46.0	45.4	44.2	44.7	45.3	46.6	47.2	46.2	45.6	44.3	45.6	1.3
격차	3.0	3.1	2.4	2.9	4.1	4.6	6.3	6.7	7.2	6.9	5.3	5.4	5.3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